

## 최음, 남기쁨의 12월 편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전4:1-2)”

12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때 처럼 덥고 습하며 비도 많이 옵니다. 늘 30도를 넘는 날씨에 하루에도 몇번씩 샤워를 하면서 주님 오신 성탄절을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 새벽 송을 돌던 그 밤이 제가 기억하는 마냥 아름다운 마지막 성탄절 같습니다. 실낙원을 사는 우리는 조국과 세계에서 들려오는 불의한 소식에 매일 놀라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지금보다 더 악한 세상의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냄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명하심은 우리에게 가벼운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해있는 부조리한 현실로 보냄 받았습니다. 서로를 격려하여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충성되게 존재합시다.

### 아내의 한국어 교육 이야기

이번엔 아내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내의 한국어 반 학생이 지난달에 Topic (한국어 토픽같은 시험)에서 최고점수(6급)을 받았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공부하여 원고지쓰기가 포함된 시험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학생의 성과를 자기 일 보다 더 기뻐하는 아내를 보며 저 또한 보람을 느낍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어 교사로서 아내를 설게한 사람은 남편인 저입니다.



2005년에 첫째 민서가 태어나고 신대원 3학년을 보내던 저는 선교지로 나갈 준비를 하면서 아내에게 한국어 교원 자격증 시험을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난생 처음 육아로 정신이 없던 아내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지만 저는 억지추진으로 아내를 경희대학교 수업에 보냈습니다. 어렵게 수업을 마치고 실습도 하고 드디어 2006년 국립국어원 제1회 시험을 앞두고 아내는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돌이 된 민서와 하루종일 씨름하며 녀석이 잠들면 짬을 내서 공부를 해야했는데 그 시험은 결코 용이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육아의 피로를 이기고 밤잠을 못자며 공부를 한 아내는 결국 합격을 했고 그렇게 아내의 한국어 교사 인생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파송 전 한국에서도 외국인을 상대로 한국어를 가르쳤고, 2008년 파송을 받아 중국에 갔을 때는 대학에서 한국어 강사를 하면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온 집이 한국음식을 먹으러 온 학생들과 그들의 발냄새로 가득했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그 후 본국사역으로 한국에 왔을 때도 구청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때 저는 한국에 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경희대

글로벌 한국학 석사를 공부할 것을 제안(혹은 강압) 했고 착한 아내는 둘째 준호를 임신한 상태로 석사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삭과 출산, 그리고 육아와 함께 논문까지 끝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해 2014년에는 극소수의 사람만 졸업을 했는데 아내는 아기를 업고 재우며 새벽까지 논문을 써서 이 과정을 마친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텀 말레이시아로 와서 우리는 작은 어학원을 시작했고 아내는 Principal 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초급, 중급, 고급을 가르친 경험으로 이젠 토픽반을 만들어서 최고점수를 받아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저의 사역 소식에 가려졌던 아내의 숨은 이야기와 이 작은 쾌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녀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분야 박사로 만드는 것이 제 계획인데 아내는 폭도같이 항거합니다.

### 12월 - 1월 사역을 위한 기도부탁

이번 연말 연시는 저희 팀 CCTC에 여러 중요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날짜를 올리는 것은 구체적인 여러분의 중보와 함께 사역을 진행하고 싶어서 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일천하고 연약하니 높이 손들어 부르짖어 주십시오. (1) 12/5-10 : 26명의 중국인 선교사 학생들이 훈련과 실습을 위해서 저희 센타로 옵니다. 이들은 저희의 협력기관인 CMTC에서 호랑이같은 야성 중심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를 통해서 선교지에서 조화롭게 적응

하고 현지 교회의 신로를 얻는 중요성을 나누려고 합니다. **(2) 12/11** : 페트라교회 주일 11시 설교를 합니다. 성탄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땅으로 보냄받으셨고 또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3) 12/20** : 타이핑 북감리교 교회 선교훈련이 있습니다. 저희 CCTC팀은 화교교회를 선교에 동원하고 중국선교사들을 훈련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안전하게 이땅을 사는 화교교회들이 선교적인 DNA를 가진 역동적인 교회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4) 12/27-30** : J 대학생 수련회 주강사로 섬깁니다. 주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저에게 물려주시고, 사단의 방해가 떠나가며, 듣는 대학생들이 믿음으로 반응 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젊은이들이 세상이 주는 판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새판을 짜고 행보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5) 1/2-5** : C 국 F지방 신년 선교부흥회를 인도합니다. F지방은 예로부터 믿음의 위인들을 많이 배출하여 듣는 귀가 높기로 유명한데,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전하고 오도록 손모아 주십시오. **(6) 1/10-18** : C국 X 지방 대학생 리더들이 저희 CCTC 센터로 선교훈련을 받으러 옵니다. 오직 돈에 목을 매는 C국의 상황에서 이들은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타문화 선교의 꿈을 꾸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7) 1/9-21** : 저희가 강사로 섬기는 대만 CMMI 선교회가 2기 훈련을 이 곳 폐낭에서 진행합니다. 저희 CCTC가 PSP 역사적 관점을 섬기기로 했는데 정말 중요한 훈련입니다.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현재와 과거의 대화를 통하여 도전과 통찰 그리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특히 이번에는 폐낭 지역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하여 함께 원데이 세미나도 하려고 합니다. CCTC를 통해서 많은 화교교회와 중국인들이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손모아 주십시오.

## 민서와 준호



사춘기 초기를 지내는 민서는 학교에서 연거푸 벌점을 받아서 그의 약속대로 머리를 박박 밀었습니다. 긴머리 아이돌에서 깎돌이가 되었군요. 지난 11월로 세 돌이 된 준호는 전형적인 악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정기도회 때 이녀석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저희가 좋은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아내나 저나 사역자로 바쁘게 살면서 이 중요한 시기에 아들의 마음을 잘 못 알아줄까봐 때론 걱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 이 번 성탄절에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교리적 예수님의 은혜에 더불어 이 불의한 세상에 직접 육신을 입고 “나시고 사신” 역사적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해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 기도제목

1. 늘 말씀의 은혜와, 통찰의 정리와, 양심의 실천이 따르는 삶을 살길.
2. 12-1월 많은 사역을 오직 주의 힘주심으로, CCTC팀원들과 좋은 팀웍으로 감당하길.
3. 아내의 한국어 사역과 육아에 힘 주시길.
4. 민서(남12)가 학교생활을 잘 적응하고 준호(남3)가 안전하게 놀도록.
5. 가족의 건강, 특히 땡기 모기로 부터 늘 안전 하길.

일반후원계좌 : KEB하나은행 099-04-00056-016 최유희 남기쁨  
 사역목적계좌 : KEB하나은행 099-04-00057-198 최유희사역비  
 인터넷 폰 : 070 7529 7446  
 카톡 : ccsskk1975 이 메일 : zangzu@hanmail.net